

빛내서 집 사고 주식하고...가계대출 3분기 만에 반등

2분기 신용 잔액 1862조8천억...1분기보다 9조5천억 증가 부동산 경기회복에 주택담보대출 14조 급증·신용거래 늘어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빛)이 전년 동기보다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높은 금리에도 가계 빚 감소세가 불거져 두 분기 만에 끝난 것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4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 말(3월 말) 1853조3000억원보다 0.5%(9조5000억원)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걸쳐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올해 1분기(-14조3000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2분기 말 잔액(186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조6000억원 적은 상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 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48조9000억원으

로 1분기 말(1738조8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31조2000억원)이 14조1000억원 늘어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도 1분기(4조500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17조7000억원)은 4조원 줄면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감소 폭이 한 분기 만에 1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조원 이상 급감했다.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4조원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6조5000억원 줄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2조6000억원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주택금융공사와 포함된 공적금융기관에서 특별보증자리본 등의 영향으로 4조7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에서 7조8000억원 늘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가계신용이 9조5000억원 늘었는데, 2021년 4분기 17조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판매신용 감소세도 계절 영향으로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의 신용 공여가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중은행들이 주로 7월 이후 출시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3분기에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신용의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가 가계신용 증가세에 주목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3분기 이후 가계신용은 주택경기과 금융환경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3조9000억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5000억원)를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판매신용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 전체 판매신용 감소액은 1분기(-3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카드론 몰리는 서민들

8곳 지난달 잔액 35조3952억...한달새 5천500억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원으로 6월(34조8468억원) 대비 5483억원 증가했다.

금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가 카드론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금리는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카드론 금리는 7월 말 기준 BC카드가 15.27%로 가장 높다. 하나카드(14.60%), 삼성카드(14.50%), 롯데카드(14.36%), KB국민카드(14.30%) 등도 14%를 넘었다.

카드론 외에도 현금서비스 역시 7월 말 기준 6조4078억원으로 6월보다 772억원 증가했고,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잔액은 7조3090억원으로 전월보다 392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별로 리스크 관리 판단에 따라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유입된 자금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의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58%로 전년 말보다 0.38%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 연체율은 0.87%로 전년 말보다 0.22%포인트, 카드대출 연체율은 3.67%로 0.69%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카드사들에 부실채권 매각,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고, 여전체 발행 시장 및 카드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자금 수요에 따라 카드론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저신용자나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22일 문을 연 광주은행의 지역상생 복합점포 1호점인 목포시 상동 내 하당지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목포 하당지점에 꽃이 피었습니다

플라워샵 연계 복합점포 운영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2일 하당지점을 플라워샵과 연계한 첫 복합점포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당지점은 '하당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컨셉으로 향기로운 꽃들과 식물로 꾸며졌다.

목포시 상동 내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자리한 광주은행 하당지점은 이번 리뉴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금융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 영세사업자인 플라워샵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

광주은행은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새로운 변화 요구에 발 맞추기 위해, "새로운 만남, 금융에 향기를

더하다"를 주제로 영업점 체널 다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복합점포 개점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업점 체널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든든한 성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경총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에 참여 중인 드림터 82개사의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광주경총-드림터 간 표준협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광주경총 '청년 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드림터 간담회

광주경총자총협회(회장 양진석·취호원 회장)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광주서구청 들불홀에서 2023년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에 참여하고 있는 드림터 82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4기 드림청년 90명과 13기 심화트랙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드림터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광주경총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행지침을 안내한 뒤 '광주경

총-드림터'간 표준협약을 체결했다.

드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장 기초노동절차 자율 진단표'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인사노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13기 심화트랙과 14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14기에 신청한 청년들은 '취업 전 관심 분야의 경험과 진로 적성을 찾아

사회인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면접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였다"며 "이들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직무 및 자동차 관련 직무, 전기·전자, IT, 경영·회계, 문화콘텐츠·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 발굴 및 인재 양상으로 구인비용 절감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경련

55년만에 명칭 변경

한경협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바꾸고 류진(사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22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새 회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또 목적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ESG 등 지속가능성장 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새롭게 출범할 한경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총회에는 류진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윤열 코오롱 명예회장, 이장환 증권당 회장, 구자은 LS 회장, 이희범 부영주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기업 보국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라며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앞으로 출범할 한경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 명칭인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의 이름이다. 한경협은 이후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 한경련을 한경협으로 통합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절차상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 회원사에 포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티앤씨 '리젠' 삼성전자 美 공장서도 사용

방진복·방진모 공급키로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이 적용된 방진복(사진)이 국내를 넘어 미국에 신설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된다.

효성티앤씨는 22일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리젠으로 만든 방진복과 방진모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복 및 의류 제품도 친환경적이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효성티앤씨가 수거한 페트병으로 리젠 섬유를 만들면, 산업용 의류 제조 전문기업인 케이엠(KM)이 방진복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효성티앤씨는 앞서 지난 3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 리젠으로 만든 방진복을 적용한 바 있다.

리젠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인증(GRS)을 획득한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로, 효성티앤씨는 이번 테일러 공장의 방진복 제작을 위해 약30만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했다. 소나무 1300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CO2량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김지형 효성티앤씨 대표는 "리젠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친환경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패션 의류는 물론 산업용 의류에 리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친환경 경영을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5.74(+6.94)
▲ 코스닥	893.33(+4.62)
▲ 금리(국고채 3년)	3.802(+0.007)
↓ 환율(USD)	1335.50(-7.10)